

[5·31지방선거]

시·도 지사후보 연쇄인터뷰

전남지사 한나라당 박재순

“발로 뚫 현장행정 경험, 도민 위해 헌신”

-한나라당 후보로 전남지사에 도전하게 됐다. 왜 자신이 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선거의 목표와 전략은?

▲9급에서부터 1급 관리관으로 명예퇴직할 때까지 40여년간 고향 전남을 한번도 떠나지 않고 지방행정부에서 매진해왔다. 특히 도청에서 농정국장, 수산국장을 거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전남의 농어촌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발로 뛰며 쌓아온 현장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도정을 책임지고 도민들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호남의 한나라당에 대한 정서가 이제 서서히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 자릿수에 그쳤던 당 지지율을 두 자릿수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부동층과 처음 투표에 나서는 19세 젊은 유권자층을 철저히 파고들 생각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지율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에 기여하겠다.

-한나라당이 호남 민심을 얻으려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 차원의 호남 발전을 위한 노력과 비전을 소개한다면.

▲한나라당의 호남 겨안기는 지난 2004년 5·18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당직자들과 함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당내 지역화합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지역화합특위가 주도해 신안 하의도 감대 중전 대통령 생가 방문, 시·도 정책간담회 및 당·정 간담회, 지역현안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호남지역 숙원사업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호남창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인 정의화 의원의 주도로 지역화합특별법이 발의됐다.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지역차원에서 광양만권과 서남부권의 '양 날개' 전략을 실현하는 공간구조가 설정돼야 한다. 또한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해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차질없이 개발돼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통합과 조정이 가능한 특정부처가 중심이 돼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를 통한, 무안국제공항과 주변 지역, 영암 삼호면과 해남 산이면 일원을 개발대상으로 하는 '서남해안종합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나주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J프로젝트 개발과 관련, 투자회사의 원금 보장과 카지노 개설,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J프로젝트는 전남의 발전을 꾀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성공시켜야 할 사업인데 카지노와 환경 문제, 간척지 무상 양여, 사업인허가 문제 등이 열려있다. 현재 운영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투자원금 보장 역시 도민에게는 짐이 될 것이다.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각 국과 FTA가 추진되면서 농촌과 농민이 벅갈 정도로 내몰리고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

▲수입개방 확대 및 소비 감소에 따라 농가소득의 25%,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쌀 산업이 당장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쌀값은 80kg 한 포대에 14만원선으로 가격이 13% 하락, 최저가로 떨어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돼 도·농간 소

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행히 협상 과정에서 쌀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이 또한 잠담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협상 시스템을 강화하고 FTA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대책이 먼저 강구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안정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며, 무역진흥조정법에 농업부분까지를 포함시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목포와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의 시 지역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발전 격차가 커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최근 광양지역 재래시장을 살피기 돌아보며 신도심과 구도심 상인들의 애로를 직접 들어봤다. 구도심에서의 결혼을 신도심 상가에서 근근히 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구도심 상권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선 관공서와 핵심 상권이 빠져나간 구도심 공간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과 시민들의 휴식처 조성,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문화와 테마가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전통 가옥과 건물들은 잘 복원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무차별적인 신규 대형 유통시설의 허가보다는, 기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양극화 해소가 국정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의 양극화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노무현 정부 들어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

소득안정특별법 제정 농가피해 최소화

권역별 특성화고교 육성 우수인력 양성

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하며, 전남발전에 맞는 기초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특성화고교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흥은 우수항공고교, 여수는 해양레포츠고교, 북부역사권인 장성·담양·곡성·구례 등지에는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고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

-전남도당위원장(직무대행)직을 겸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어디까지 후보를 낼 계획인가?

▲현재 기초단체장 후보 3명, 기초의원 후보 3명만이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재영입 노력에 박차를 가해 훌륭한 후보를 출마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 차원에서 왜 호남 주민들이 그동안 한나라당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호남 발전을 위해 영남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할 것이다. 그간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도민들에게 다가선 결과,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인식 또한 조금씩 달라지면서 점차 가슴을 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구체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도 맹목적이거나 배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로 한나라당을 바라봐주길 부탁드립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결어온 길

서기보 출발 '마당밭 행정가'

마로해역 김 어업분쟁 해결

1944년 보성 태생으로 광주서중과 조대부고,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조선대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는 1964년 말단 공무원인 산림보호직 서기보(현재 9급)로 출발, 강진군수, 수산·농정·자치행정국장 등을 거쳐 도의회 사무처장과 도 기획관리실장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

40여년이라는 세월을 지방행정 관료로 재직하면서 타고난 근면성과 특유의 기획력을 발휘, '행정의 달인' '마당밭 행정가'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닌다.

초임 군수시절 아이디어를 내 전개한 '나무터, 지금부터, 쉬운일부터'라는 '3부터 운동'은 지금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박 후보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오직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간다'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공직 시절 현장을 반드시 다녀와야 직성이 풀리는 업무 스타일로도 유명하다.

도 수산국장 시절에는 진도·해남(마로해역)의 김 양식장 어업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해냈고,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황토살포와 어장 황폐화의 주범으로 꼽혔던 불가사리 포획 보상금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도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지난 2003년 2월 명예 퇴직하고 전남체육회에서 3년간 상임 부회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 1월 2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영입 제의를 받아들여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취미는 등산이며 부인 김명자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공약

'번영하는 전남' '행복한 전남' '살사는 전남'을 전남 발전 3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전남을 6대 권역으로 나눠 발전 잠재력이 큰 사업들을 연계시키겠다는 구상 아래 권역별 시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공약발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예컨대 서부해안문화권인 무안 기업도시에는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향후 10년 동안 1천만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들이 전남을 방문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중국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중국 자본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중국 영사관을 유치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다양한 해양레포츠 상품을 개발, 다도해 섬문화권인 신안과 완도 및 진도권에 철인 3종 경기를 유치하고, 국제 요트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더불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불 조성과 왕건, 이순신, 장보고 등 전남에 산재한 해상유적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테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호남지역 숙원·현안사업 예산 반영 등 지역화합특위 구성 호남겨안기 본격화

-민선 3기 전남도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체적으로 무난했다고 본다. 그러나 전남은 1차산업 비중이 32.1%나 되므로 농업업과 수산업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난 2월 한미 FTA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로 농축산도인 전남에서 2천여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각종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과 함께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의 확대, 농산물 생산이력제 활성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농산물 판로와 유통망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전남도내에서도 지역간, 시군간 발전에 균형을 잃어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적지 않다.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4대 권역별 발전계획은 상생체계가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을 세운 뒤 더욱 세부적인 권역별 발전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관광·물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번영하는 전남', 교육·복지 정책을 통한 '행복한 전남',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땅'으로서의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내를 동부·서부·남부해안문화권 및 다도해(섬)문화권, 중부·북부 역사문화권 등으로 나눠 차별화된 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중남부권 개발을 위해 녹차와 우주항공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화순 및 장흥지역을 생약 및 바이오, 생태산업의 핵심 축으로 개발해야 한다.

-차기 전남지사가 풀어나가야 할 전남의 현안 다섯가지를 꼽는다면?

▲호남고속철의 경우 당장의 경제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기 착공해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도 기필코 유치,

● 순천대학교-농촌진흥청-친환경바이오사업단 공동심포지움 / 산업전시회 / 포스터 발표대회 ●

제1회 공동심포지움 및 산업전시회

[친환경바이오산업의 비전과 전망] ● 일시 : 2006년 4월 26일(수)~28일(금) ● 장소 :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포스터 발표

본 심포지움에서는 순천대학교, 농촌진흥청, 친환경바이오사업단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공동심포지움 및 산업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본 심포지움에서는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산업전시회에서는 친환경 바이오산업을 소개하고, 포스터 발표대회에서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합니다. 본 심포지움은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1층에서 개최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 친환경바이오사업단 (061-770-3001)

주요 일정

26일(수) - 학술입문 및 강연대회

- 학술입문: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전망
- 강연: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
- 포스터 발표: 친환경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결과 발표
- 학술회의: 친환경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결과 발표

27일(목) - 심포지움 및 포스터 발표

- 심포지움: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전망
- 포스터 발표: 친환경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결과 발표
- 산업전시회: 친환경 바이오산업 소개
- 포스터 발표대회: 친환경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결과 발표

28일(금) - 심포지움 / 산업전시회

- 심포지움: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전망
- 산업전시회: 친환경 바이오산업 소개
- 포스터 발표대회: 친환경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결과 발표

- 후원: 순천대학교, 농촌진흥청, 친환경바이오사업단
- 후원: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 후원: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 후원: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문의처

- 순천대학교 친환경바이오사업단: 061-770-3001
-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061-770-3001
- 친환경바이오사업단: 061-770-3001